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행 중단 위기

운영사 "적자 누적 감당 안돼"...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요청

순천시 "일방적 협약 해지 통보 있을 수 없어" 보완책 검토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 소형 무인케이블 '순천만 스카이큐브(Sky Cube)'의 운행이 중단될 처지다.

순천시에 따르면 스카이큐브를 지난 2014년 4월부터 운영해온 순천에코트랜스(주)가 최근 적자 누적 등 이유로 순천시와 맺은 30년간 운영 후 기부채납 이행 협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포스코 자회사인 순천에코트랜스 측은 2014년 4월 순천만에서 스카이큐브 운행을 시작한 이후 그해 58억원, 2015년 45억원 등 2년이 채 되지 않아 9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200억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에코트랜스는 애초 순천시와의 30년 운영 후 기부채납 협약에 명시한 순천시의 적자 보전 및 순천만 국가정원 입장권에 스카이큐브요금 통합, 주차장 문제 해결 등을 시가 지키지 않아서 더 이상 운영키 어렵다는 견해를 이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순천시는 기존 협약에 대해서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포스코와 다시 협약을 맺은 바 있고 협약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에코트랜스가 주장하는 협약을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자회사인 에코트랜스의 운영에 대해서 기존 순천시와 맺은 협약을 삭제한다는 동의서를 2014년 순천시에 공문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애초 협약이 사라졌다는 취지다.

순천시는 에코 트랜스 측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할 경우 법률 조인을 받아 중재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자를 이유로 해마다 적자를 보전해 달라는 에코트랜스측의 요구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서 "순천만의 명물인 스카이큐브가 잘 운행돼야 한다는 생각은 양측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운행중단 없이 잘 해결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큐브는 포스코가 순천시와 민간투자협약을 맺고 건설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 시킨 PRT(소형무인케이블·Personal Rapid Transit)다.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세계 최초며 차량마다 축전지(배터리)를 내장한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시와 협약에 따라 순천만국가정원역에서 순천문화관까지

4.62km 구간에 610여원을 들여 PRT를 건설했다.

2011년 6월 착공해 6개월간의 순천만국정정원박람회 기간에 시작되는

2013년 4월경부터 운행할 예정이었지만 1년 후인 2014년 4월경부터 차량 40대가 교대로 운행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큐브 순천만국정정원에서 순천만까지 직통으로 가지 못해 탑승객들이 순천문화관역에서 내려 갈대밭 입구까지 1.2km 상당을 더 걸어가야 순천만에 도착하는 불편이 따랐다. 운영사 측은 1km 이상 연장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꿀 따는 배추흰나비 27일 오전 내달 1일 재개장을 앞둔 경남 남해군 삼동면 내산마을 인근 남해나비생태공원에서 갓 우화된 배추흰나비가 꽃밭을 날아다니며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3월 화재 등 안전사고 높아...5년간 3349건 부주의가 원인

행안부, 3월 중점관리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 전달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중 발생하기 쉬운 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3월 중 산불과 화재, 황사·미세먼지,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 등 다섯 가지 재난으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가 사망자 수는 다른 달보다 높은 편이다.

산불은 등산객 등 입산자가 부주의했거나,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산림과 인접한 곳은 화기 취급에 주의하고, 부득이 논과 밭두렁을 태울 경우 시와 군 산림부서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3월은 일반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달이기도 하다.

전열기 등의 난방 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보다 오히려 화재 발생이 잦은 편이다.

최근 5년간 평균 3349건(64%)의 화재가 담배꽂초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황사와 미세먼지도 주의해야 한다.

3월은 고비사파라 내풍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 유입이 가장 많은 시기다. 황사 외에도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창문 등을 닫아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봄이 오며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감에 따라 겨우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려 지반이 약해지면서, 건설 공사장이나 노후주택, 축대·옹벽, 절개지 등에서의 낙석과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 10년간 해빙기 안전사고는 45건이 발생했으며, 사망 8명, 부상 12명 등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인도네시아 금광 붕괴 1명 사망·60여명 매몰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불법 금광이 붕괴하면서 수십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오전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명이지만 이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난국은 27일 성명을 통해 전날 술라웨시 섬 북부 불리앙 몽온도우 지역에 있는 한 불법 금광이 붕괴돼 현재 60여명이 매몰됐으며, 수색팀이 이날 오전 5시쯤 13명을 구출하고 시신 1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재난국 대변인은 "수십명이 해당 장소에서 금을 캐고 있었는데 갑자기 빙과 지대가 무너졌다"고 붕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재난국은 구조대가 사고 지역에서 생존자들을 구출해 들것으로 옮기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다.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는 소규모 금광을 금지하고 있지만 외딴 시골 지역에서는 불법금광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유엔, 예멘 난민에 공급되는 밀 적합성 재조사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 대표단이 28일(현지시간) 예멘의 레드시 제분소 등을 두번 째로 방문했지만, 이곳에 보관된 밀이 기아상태의 예멘인들에게 공급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검사하지 못했다고 유엔 대변인이 밝혔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유엔 식량기구의 대표 팀이 201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예멘인의 생명이 달린 이곳 밀 저장소를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WFP는 지난 몇달 동안 이곳의 중요한 식량저장소와 제분소에 대한 조사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해왔지만, 호데이다 지역의 전투로 인해 접근이 차단되었다. 호데이다는 예멘에 들어오는 밀 등 식량의 70%를 관장하는 중요한 창고와 제분소들이 몰려 있는 중심지이다.

두자릭 대변인은 "짧은 방문이었지만 28일의 방문은 앞으로 더 지속적인 접근 조사의 길을 연 셈이다. 앞으로 이곳에 집합된 밀과 자체 제분 시설에 대한 조사를 더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곳의 밀은 한달에 최소 370만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이지만, 두자릭은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량이 사람이 먹기에 적합한지 WFP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식량기구는 국내 생산된 밀 재고와 바다나 육로를 통해 오만을 거쳐 들어오는 더 많은 수입밀로 예멘인구 1000만명 이상이 연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제네바의 예멘 구호를 위한 총회에서는 예멘에 대한 구호 지원금을 2018년보다 20억 달러 오른 280억 달러로 결정했다. 이 회의의 의장을 맡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인상분의 대부분은 사우디 이라크와 이라크에미리트 연합으로부터의 기부금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현재 예멘인구 중 2400만명(전체 인구의 80%)은 인도주의적 구호품과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그 중 2000만명은 식량확보에 원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英, 한낮 기온 20도 넘어...역대 겨울 최고기온

25일(현지시간) 영국 한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섬서역대 겨울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웨일스 지역의 오전 기온은 20.3도였으며, 오후에는 20.6도까지 올랐다.

이는 2월 뿐 아니라 역대 겨울 최고 기온이다. 지난 1998년 런던에서 19.7도를 기록한 적 있지만 20도가 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겨울철 기온이 20도가 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달 초 전국적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였던 점을 생각하면 극명한 차이"라고 전했다.

이들 "주말까지는 따뜻한 햇살과 기온이 온화한 봄날씨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겨울같이 않은 따뜻한 날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캐럴라인 루커스 녹색당 하원의원은 "난 다른 사람들 만큼이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오후를 보내는 걸 좋아하지만 지금 이런 옹기"라며 "전대 미문의 세계적인 폭염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린 기후변화를 겪고 있지만 긴급한 조치 대신 정부여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해 기후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머릿에는요...
자폐체로 겪고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검진기관이 포함되어있으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검진